

◆ 특집-광주항쟁의 올바른 시각 정립을 위해

I. 광주항쟁의 배경과 조건

올해로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만 10년이 된다. 80년 그날 이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 광주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중대한 계기였지만 10년이 흐른 오늘 다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절감하는 것은 광주항쟁의 객관적 진상조차 책임있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광주민중항쟁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현재의 우리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가, 바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80년 광주'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선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광주민중항쟁이 단순한 유혈사건이 아니고 역사 속에 위치한 지배세력 대 민중의 무력대결이라고 한다면, 항쟁 이전 한국사회의 어떤 정치적 갈등과 모순이 이같은 광주민중항쟁을 초래하였고, 이후 광주민중항쟁이 남한 사회의 변혁을 둘러싼 정치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민중항쟁은 한국사회 모순의 결과를 극명하게 노출시켰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더불어 남한 땅에서 구축되고 시행된 분단체제와 종속적 경제발전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이다. 즉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해 속에서 과대하게 성장한 군의 본질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유혈적 탄압 과정에서 드러났고, 뒤에서 군을 후원한 미국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박정권의 독재적 통치와 경제발전의 결과로 발생한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기층민중의 삶을 파탄시켰고 이들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지역적 편차를 초래하여 호남민중의 생활을 압박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은 지배세력이 미국의 후원 아래 군을 투입시키고 기층민중

의 지역적 동력을 가진 광주민중이 무력으로 저항했을 때 분명해졌다. 다음으로 광주민중항쟁은 당장은 군의 유혈진압 과정에서 좌절되었지만, 이후 민중에 바탕한 민족민주운동의 진정한 출발이 되었다. 비록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국민중이 같이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광주의 민중이 나서면서 해방정국의 갈등과 한국

을 같이하는 민족해방을 위한 정치운동이었다. 여기에 외세와 야합한 독재권력에 대항하여 광범위한 기층민중이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민중운동이었으며, 무장투쟁이었다는 점에서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과 맥을 같이하는 민족적·민중적·민주적 무장항쟁이었다.

광주항쟁은 결코 하루아침에

지 않았던 그 장엄한 광주의 무장항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외세에 의존하는 반민중적 지배계급은 폭어으로는 민중의 투쟁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가식적으로 표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반민중·반민주적 정체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고, 그 본성이 백일하에 드러나 민중투쟁의 조건이 성숙되어가자 민중에게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에 대해 반민중적이다. 이러한 성격은 해방정국에서의 미군정의 활동이나 한국전쟁 때의 미국의 개입에서, 또한 5·16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12·12를 방조했고,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강경군부를 후원하여 군함을 동원하고 조기경보를 띄웠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로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항상 독재정권을 지지했고, 광주

소외가 광주민중으로 하여금 광범하게 항쟁에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박정권의 유신독재에 정적이었던 김대중은 광주민중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호남민중의 이중적 소외는 그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는 호남출신의 상징적 정치인인 김대중을 통하여 결집되고 발산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에서 민중적 진출의 폭발성은 김대중을 매개로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항쟁은 왜 광주에서만 촉발되었는가. 이론제에 대해서는 강경군부의 의도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주장으로부터 광주민중의 특출한 저항을 제시하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객관적 사실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강경군부가 혼란을 이유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대상자와 대상지역이 김대중과 광주지역일 수 있었다는 점, 그러나 사건은 광주민중의 결사항쟁으로 의외로 강경군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 등이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하고 예상외로 확대되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둘째, 광주민중항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대중적 수준에서 볼 때 최후까지 남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노동자와 학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핵으로 하여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계급계층의 사람들이 항쟁에 참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도부의 수준에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지도한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역시 학생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

이상과 같은 전개과정상의 특징으로 볼 때 광주민중항쟁은 목적의식에 의해 지도되고 행해진 무장봉기에 의한 민중권력의 수립은 아니었다. 그것의 출발은 자연발생적이고 방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력에 의해서 '항쟁'의 의미는 가시나 '봉기'의 의미에는 이르지 못하는 광주민중항쟁의 위상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민중항쟁은 민중권력 수립을 위한 목적의식적인 봉기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민중이 독재정권의 무력에 대항하여 무장항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과 정당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중항쟁은 어떻게 보면 7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극복하고 80년대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에서 고인되기 시작한 민중권력의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V. 광주항쟁과 90년대 변혁의 지평

80년 이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지배세력에 대한 축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에 바탕한 민주변혁의 추구로 이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5공과 다름없는 6공정권은 광주민중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보상금으로 항쟁의 의미를 매수하려 들었고 있다. 따라서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역사와 민중 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정치적 현실은 이 정신을 희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민중항쟁이 90년대 변혁운동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광주민중항쟁의 약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국과 지배세력의 시도에 대항하여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90년대 민주변혁의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일이다. 그 변혁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80년에 강경군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쟁에 참여하였듯이, 90년대 들어 노골화된 미국과 6공의 새로운 분할 지배전략에 대항하여 그들에 반대하는 전 민중의 연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특히 광주항쟁의 정신이 한편으로 민족민주세력에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민당으로 연결되는 현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이들처럼 광주민중항쟁을 매개로 해서 평민당의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고 양자간의 연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평민당은 정치의 현실 속에서 광주의 정신을 지역적 차원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민족민주세력은 이념적 추상 속에서 광주의 호남민중이 아닌 정서를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민주대변회의 연대 속에서 올바르게 이어질 때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는 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확인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 회 상
< 말 지 기자 >



올바른 계승으로 부활하는 '빛고을'

광주항쟁이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민주변혁으로서의 계승 발전은 충분한 논의와 실천이 부족했다. 심지어는 보상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우마하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본고는 광주항쟁이 가지는 의미와 시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6공의 지배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범민주세력 연대의 매개고리
항쟁주체와 무장봉기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평가 선행돼야

불복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외세의 침탈에 의하여 민족의 혈액이 끓고, 민족이 공유해야 할 국토가 양단되었을 때부터 이미 광주항쟁의 씨를 뿌려져 있었다.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래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려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외세에 의존하는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처절하게 탄압받고 거세되고 학살당해왔다. 그러나 학살된 민족적 양심들은 비옥한 밑거름이 되어 사회의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반격의 씨가 싹트게 하는 소지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조건이 있

이렇게 볼 때 광주항쟁은 본질적으로 민족모순의 지역적 폭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III. 항쟁이 제기하는 문제

그러면 광주민중항쟁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배경·전개과정·결과 및 영향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한에 대해 가지는 자신의 정치·군사·경제적 이해로 인하여 한국민중

민중항쟁에서는 강경군부의 권력 장악을 목과했고 유혈진압을 후원했던 것이다.

둘째, 종속적 경제성장은 광주민중항쟁과 어떠한 관련을 지니는가. 박정권은 집권 후 약 20년에 걸쳐 종속발전을 시행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독점자본의 성장과 광범한 기층민중의 발생이었다. 동시에 거점성장정책과 불균형 집중투자전략은 지역간 개발격차를 야기시켜 경제성장에서 호남이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호남의 민중들은 기층민중으로서의 지위에 더하여 지역적인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타지역의 민중들과는 달리 바로 이러한 이중적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신민당 김영삼정권에 대한 공화당의 국회의원 제명이 부마항쟁의 촉발 계기가 되었다 것처럼, 내란음모의 이름하에 취해진 김대중에 대한 제포는 광주민중항쟁에 민중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바로 여기서 정치적 위기에 특정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중적 진출의 한계를 확인하게 된다.

IV.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시각정리

다음으로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사라져가는 대화문화

"사람에게 귀는 두개인데 왜 입은 하나입니까?"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범인이라면 그런 질문을 했을 리

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는 뜻이니까"라고 대답했다. 요즘의 우리는 마스크의 발달로 인해 그야말로 정보의 중요 속에서 생활하고

시선은 분명 상대방을 향해 반짝이고, 귀도 분명 상대방의 소리를 하나라

고 상대방의 말에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거나 흘려 흘려 듣거나 그러다가 문득 어쩔른 대화로 인해 작은 논쟁이 생긴다.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커녕, 상대방의 말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거나 상대방의 말을 적당히 끊을 기회만을 찾는 우리, 누군가가 나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며 열심히 들어주는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 그리고 친구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나 더욱더 중요했는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는데로 행동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옛말에도 백문(百問)이 불어일전(不如一見)이라 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많이 알아서도 행동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비록 많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아니라지만 진리는 평범한 것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 있다. 그렇듯 진리는 평범속에서 살아 숨쉬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평범속에서의 진리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대화! 대화가 부족한 시대라고 여기기에서 떠돌아다녔지만 누구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 세상.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일 이것에서부터 참다운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상 하는 얘기라 식상하다고 할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참다운 대화를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주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또 나는 나의 이런 소리를 높이고 있군)

본래의 의미 잃은 신체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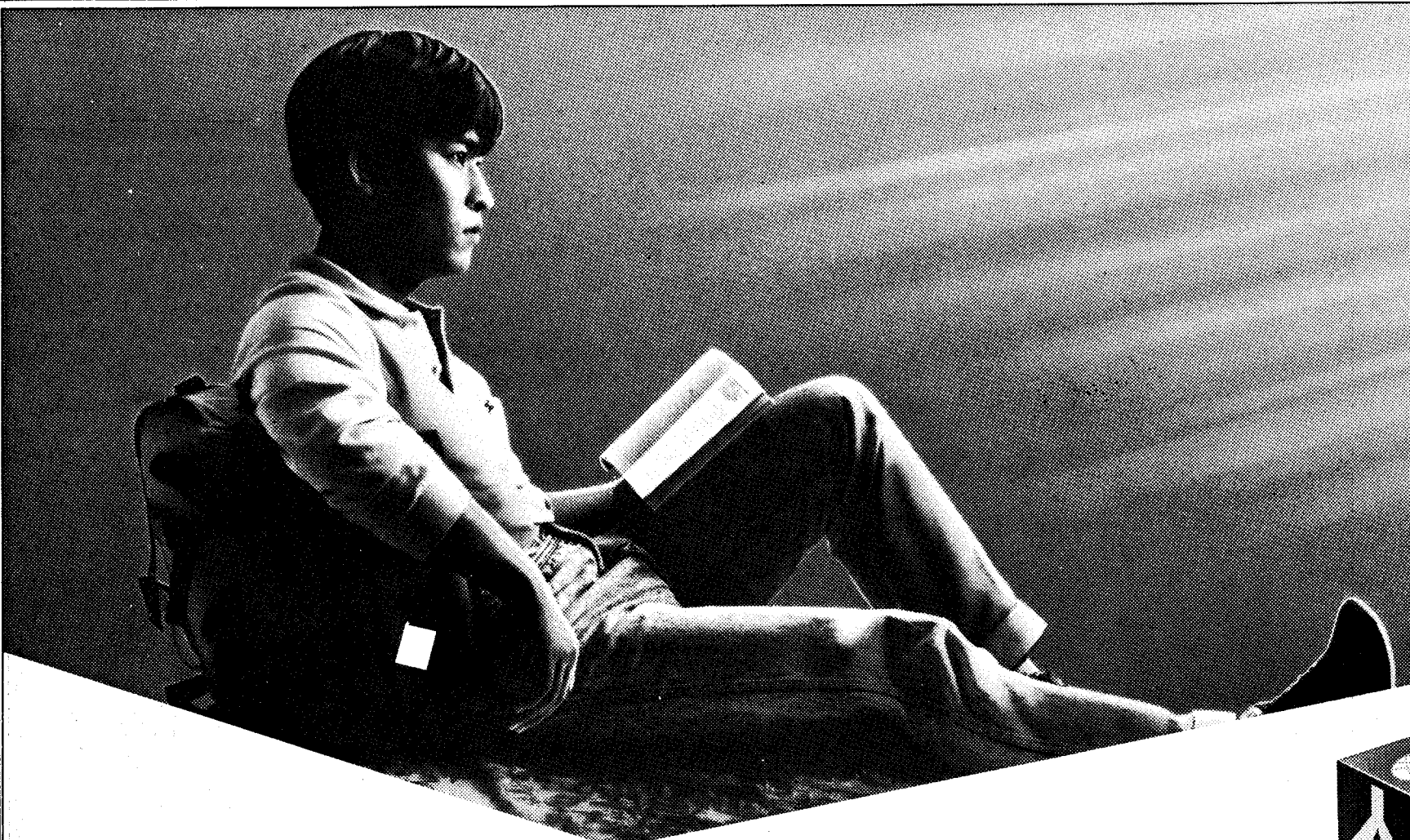
귀가 두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기 보다는 많이 듣기 위해서라고 한 옛 성현의 말이 요즘들어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평범한 사실이고 또 당연히 여기는 사실들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보였다고 단정 지을수만은 없다. 어쨌든 그의 그런 질문에 그의 스승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말하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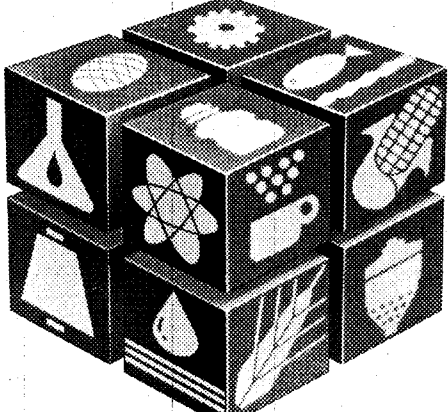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의 목소리를 높일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보다는 나의 목소리를 높이

도 놓치지 않으려다듯 종국세듯듯한데 머리속에서는 집에 두고 있는 딱지 리며 어찌 만났던 친구의 생각이며 이런 것들이 여기 한자리의 자기한자리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기울어지는 하버 상대방의 이야기에 신경을 쓸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는 그럴 것이다 남들도 할 수 있는 소리, 많이 들어 본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나 많이 들어도 또 많이 보고 읽고 했어도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



삼양은 내일을 기다리기보다는 내일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삼양

- 주식회사 삼양사
- 삼양화학 주식회사
- 삼양식품 주식회사
- 삼양건설 주식회사
- 삼양토목 주식회사
- 삼양무역 주식회사
- 삼양물산 주식회사
- 삼양산업 주식회사
- 삼양개발 주식회사
- 삼양투자 주식회사
- 삼양금융 주식회사
- 삼양서비스 주식회사
- 삼양인쇄 주식회사
- 삼양광고 주식회사
- 삼양유통 주식회사
- 삼양정보 주식회사
- 삼양문화 주식회사
- 삼양예술 주식회사
- 삼양체육 주식회사
- 삼양관광 주식회사
- 삼양교통 주식회사
- 삼양통신 주식회사
- 삼양에너지 주식회사
- 삼양환경 주식회사
- 삼양안전 주식회사
- 삼양보건 주식회사
- 삼양복지 주식회사
- 삼양교육 주식회사
- 삼양연구 주식회사
- 삼양개발 주식회사
- 삼양투자 주식회사
- 삼양금융 주식회사
- 삼양서비스 주식회사
- 삼양인쇄 주식회사
- 삼양광고 주식회사
- 삼양유통 주식회사
- 삼양정보 주식회사
- 삼양문화 주식회사
- 삼양예술 주식회사
- 삼양체육 주식회사
- 삼양관광 주식회사
- 삼양교통 주식회사
- 삼양통신 주식회사
- 삼양에너지 주식회사
- 삼양환경 주식회사
- 삼양안전 주식회사
- 삼양보건 주식회사
- 삼양복지 주식회사
- 삼양교육 주식회사
- 삼양연구 주식회사

“배낭하나, 주머니엔 단돈 몇천원,
세운 뜻 하나로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젊은이”